



소니아 페르난데스 판

# 공극의 댄서

거대한 위기 이후, 클럽에서 춤을 추는 몸이 생산하는 에너지는 저장되어 지역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모호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체로 춤을 출 때의 즐거움과 커뮤니티 구축에 이끌려 움직인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일상은 우정과 공동체 생활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를 시사한다.

\*\*\*

방금 잠에서 깨어났다. 클럽에서 17시간 동안 춤을 추고나서, 여전히 근육통이  
느껴진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잠들어 있는 R과 V는 그것을 ‘춤추는 우주선’  
이라고 부른다. 도시에선 ‘몸뚱이 발전소’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기억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는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기에, 나는 그것을 ‘클럽’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곳에서 우리의 몸은 오래전 남들이 춤춘 몸짓과 엄청난 양의  
즐거운 에너지로 움직인다. 우리는 공유된 역사를 위해 땀을 흘린다. 음악은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 일을 내던진다. 클럽 안에서 우리는  
리듬으로 이뤄진 선조들의 시간으로 들어서는데, 이는 움직임 안에서  
공유되는 감각의 신선함을 되풀이한다. 그것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전적으로  
우리의 것은 아니다. 댄스 플로어에서는 미래가 뒤로 가고, 과거가 앞으로 온다.  
우리는 능수능란하게 피로를 활력으로 바꾼다. 춤을 추는 동안 우리 몸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저장되어 도시 전체에 분배된다. 결국 누군가는 즐거움에서  
생성된 이 에너지가 다른 그 무엇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장치이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춤을 추는 즐거움은 그 행위를 하는 실질적 이유를 간과한다.  
우주선 안에서는 몸이 정신을 이긴다.

내가 채용되던 날, 그들은 대규모 에너지 위기가 벌어지기 전에 추던 춤은  
달랐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소실될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영원히 손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곳곳에서 유명을 목격하는 K는 우리가 사는 집에서 저장되지 않은 모든



기억을 감지한다. 그들은 수개월 전 에너지 탱크에 들어가려 열심히 애썼지만, 그러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으며, 인체 공학적 의자와 카페인이 잔뜩 들어간 음료를 갖춘 사무실에서는 기분이 굳는다. 발전소 입장에서 우리는 필수적이지만 대체 가능한 존재다.

클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그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대체하면서. 하지만 내가 추는 춤이 클럽을 벗어나고 에너지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는 어딘지 아름다운 점이 있다. 내 몸의 열기가 내가 결코 만나지 못할 다른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자원이 된다는 것은 겸허하면서도 두려운 일이다. P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받은 말투를 따라 이것이 역설적 균형이라고 말한다. 즉,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다. 집단으로 침대를 공유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지 않는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겐 행동 지침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P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 클럽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V는 우리가 결코 되어 본 적 없는 외동 아이 증후군을 앓는다고 말한다. P는 역사 아카이브에 몇 장 남지 않은 가족 앨범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전통에 반대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전통으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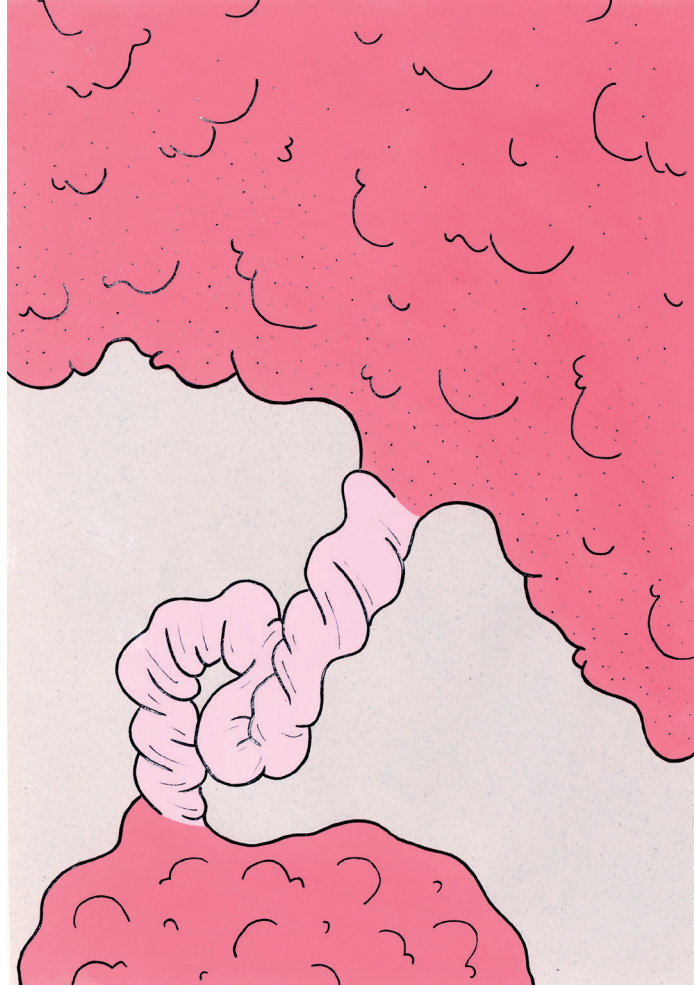
P는 춤을 아주 잘 춘다. 그들은 몸짓을 빌려 다른 많은 몸을 붙잡는 법을 안다. 그들은 이를 미러링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이 말을 할 때마다, 내게 눈을 깜빡인다. 이는 거울 속 이미지가 영원하지도 않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그들 나름의 방식이다. 나는 미소로 화답하고 ‘우리의’ 방언에 관해 말한다. 이건 내가 P를 적극적이고 달콤하게 거슬리게 만드는 방식이다. 커플과 관련한 모든 일이 그들을 긴장하게 만드니까. 나는 그들이 스타일이란 영원한 내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형식을 뜻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낀다. P는 올바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개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품고 모호한 의미를 경계한다. 그들이 보이는 언어에 대한 편집증적 태도는 아직도 나를 즐겁게 한다.

K가 중고의 중고 중고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구한 티셔츠의 슬로건은 마치 K가 그들을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 “믿을 수 없는 믿음.” 나는 P에게 있어 파트너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그들은 결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2인자도 1인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산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P는 그들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에게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춤을 추고, 스스로 욕죄고 압박하는 윤리에서 벗어나고자 춤을 춘다. 내가 춤을 추는 이유는 소리가 박자가 엇나기 때문이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끝을 즐기기 위해



춤을 추러 가기도 한다. 또 어떤 때에는 막연한 소속감으로 내 현실을 잊기 위해서 간다. 어떤 때는 S, 즉 ‘The Scene’을 만나러 간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간다. 때로는 심지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서 갈 때도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M이 나를 ‘트리니티’라고 부르며 비웃었다. 그들은 내가 절대로 21세기 전환기의 네오-매트릭스-테크노 미학의 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옷을 입고서 잠든다. 퇴근 후에는 보통 샤워를 한다. K는 댄스 플로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달을 걱정한다. 그들은 우리가 흘리는 땀에서 유령의 냄새를 맡는다. M은 독소가 부족하다며 잠시 내 팔을 핏었다. 그런 뒤 내가 퇴근 후에 계속해서 듣는 음악에 “이십-칠-킬로미터”라는 말을 속삭였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진전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M은 내가 잠든 사이 그들이 내 에너지 측정기를 훑쳐본다는 걸 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P의 집에서 열린 마지막 회합에서 우리는 독성과 죄책감의 분배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에 휩싸여 시간을 허비했다. M이 진정으로 낭비라고, 또한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건 물에 물질을 타서 오염시키는 우리의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자연의 일부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땀흘리고 소변 보기를 필요 이상으로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땀도 좋아한다는데, K는 이를 큰 불행으로 여긴다. 죄책감에 대해, P와 그들의 해커들은 우리보다 더 확신에 찬 모습이다. 죄책감이란 타인을 배려하는 척만 하는 자기중심적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순되는 지시를 따르며 사는 법을 모른다. 자신과 다른 이들과는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며, 그들과 같이 다른 이들 편에 선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에너지 댄서였다면 아마 테크노 세션에만 춤을 추러 갔을 것이다. 테크노 음악이 나오는 우주선에서 첫 근무를 마친 R과 V는 인간의 기질과 음악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댄스 플로어에서는 P의 동료들과 소통하는 일이 좀 더 쉬울지 모른다. 춤은 언제나 거리를 줄여준다. 언어 윤리에 대해 절정을 맞이할 때, 클럽 밖에서는 서로간의 차이가 우리를 기다린다.

춤을 출 때면 언제나 집에 가서 공유하고 싶은 작은 발견을 안고 돌아온다. 일할 때 쓰지 않는 모든 말이 아침 식사 자리 굶주린 자그마한 입에 걸렸다. 나 역시도 지난 주에는 아주 신이 나서 돌아왔다. 나는 쉬는 시간에 S의 팔뚝을 핥고 이름 모를 댄서 몇 명과 키스를 나눈 후, 우리의 몸이 민물을 짠맛이 나게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V 또한 그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아침에 마신 세 번째 커피를 실수로 내 얼굴에 뺨으며 말했다. 우리는 강의 하구와 같은 존재들이야! M은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유난을 떨기엔 너무 이르다며 화장실로 가서 소금물을 흘려보내고 세로토닌을 처리했다. 잠 못 이루는 근무를 마친 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온 P는 내가 파자마로 입은 티셔츠의 “내가 춤추는 걸 봐”라는 문구를 보고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티셔츠는 K가 레트로-노스탤지어 판매업자를 여러 번 방문한 뒤 내게 준 것이었다. 나는 춤이란 다른 이들이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노력이라고 말하며 P의 비판을 막았다. P는 마그네슘이 담긴 물잔에 “옷장에 자아를 남겨두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속삭였다. 나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텔레파시로 경고했다. “합당한 생각은 인생을 파악하지 못해.”

R이 직접 만든 댄스 의상을 입고 주방에 들어왔다. 나는 아주 잠깐동안 그들이 일을 하러 가는 건지, 돌아오는 건지 궁금했다. 땀에도 지워지지 않는 반짝이 메이크업이 그대로였다. 그들은 오후 4시에 “좋은 아침”이라며 하품을 했다. 나는 클럽에서 보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함께 춤을 추는 흐릿한 이미지를 포착했는데, 나는 마치 못해 검은 옷을 입었고 그들은 드레스 코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R은 테크노 음악 근무조보다 길이가 짧은 후기 gqom 음악 근무조에 합류했다. 드레스 코드는 테크노 음악 세션에만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드레스 코드가 소속감을 자극하고 음악과 더 잘 어울리며,



오랜 역사와도 더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이다. V는 반복하는 신체가 반복적인 몸을 더 잘 견뎌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클럽을 떠나기 전, R과 나는 하나의 댄스 스타일 안에서 다른 스타일로 춤을 추면서 다시 한 번 규칙을 어겼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사운드가 아니라 어떤 음악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우리 둘 모두 테크노가 지닌 선행적 기억을 좋아하지만, 다른 여러 리듬의 불확실성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아한다. 나는 가공의 드럼 앤 베이스 음악의 마지막 도약과 함께 그들을 안아주고서 라커로 가서 일상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나가는 길에는 경비원 가운데 한 명이 내게 진지한 미소를 보였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춤추며 애시드 하우스 음악의 섹스 없는 에로티시즘에 빠져보고 싶다. 때때로 규칙을 어기더라도, 그들은 불평할 수 없다. 내 몸은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며 효과적인 공감을 안겨준다.

R은 우주선 탑승 이후 단식을 하는 듯한 분위기로 내 옆에 앉았다. 가는 길에는 식당에 들러 미소 된장 맛으로 비타민을 과하게 넣은 테이크아웃 음식을 몇 가지 주문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집에서 근무용 ID 카드를 분실한 적이 있다. R은 음식을 가져다 준 것에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비우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춤을 더 잘 추게 되는지 농담조로 말했다. 나는 그들이 이번에는 내가 추가로 주문한 음식값을 내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공헌에 고마움을 표했다고 보고했다. M은 대화의 마지막 문장이 오갈 즈음 자기가 좋아하는 티셔츠를 입고 공장으로 떠날 준비가 된 모습으로 등장했다. “유토피아는 느낌이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되는 바람에 형광색으로 인쇄된 작은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 어질어질 할 정도다. 발전소에서 UK 개러지 음악 세션이 열린다면, M은 이전 교대 근무를 끝내고 쉬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티셔츠를 가리켰고 우리는 춤을 추는 대신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의 작업을 이해하고 그것이 쾌락주의적 오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종종 유토피아적 특권을 누린다면 비난받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유토피아는 소수의 노력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 공헌이다. P는 우리의 환담에 끼어들어 무지함이 정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V는 S에 대해 물었다. 그들 역시 발화 감소 패치를 붙이고 춤을 추다가 만난 사이였다. S는 아직도 언어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 그들은 휴식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며 발전소가 실제로는 표면에 대한 연구를 위한 미개발의 실험실이라는 온갖 사람과 공유하는 걸 좋아한다. 그곳엔 언제나 벽, 바닥, 유리병, 피부, 심지어 역사를 만드는 우리의 구조에서 리듬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들어 줄 준비가 된 동료 댄서가 있다. S는 청결함이나 UK 개러지 음악만큼이나 표면에 집착한다. 그들이 어떻게 옷을 더럽히지 않고 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M은 코트와 배낭을 챙겨 입고,





오늘 밤 S가 나타난다면 바닥에 맥주를 부어 귀엽게 짜증이 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집을 떠날 때,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은 좋아”라는 외침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S와 나는 화장실을 기다리는 줄에서 만났다. 그들은 바지에 묻은 보이지 않는 얼룩을 닦으며 신발이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 술 마시는 걸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물병을 권하면 그들은 주저 없이 물을 마시고, 시작하는 우리의 관계와 ‘The Scene’과 ‘The Professionals’에 대해 나눌 대화에 촉배를 올렸다.

P는 보다 넓은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여긴다. 또한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주인의식이 커뮤니티의 가치와 모순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커뮤니티의 오만한처럼 들리는 독특한 억양으로 항상 이 말을 한다.

S는 이 무언의 규칙에 대한 희귀한 예외다. 보통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를수록 더 가깝다고 느끼곤 한다. 집에서는 멍청하게 살지 않으며, 말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춤춘다는 것도 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수록 쉬는 날은 더 많다. 쉬는 날이 많을수록 다시 춤추고 싶은 마음은 커진다. R은 우리가 굶주린 채 스스로를 잡아먹는 존재라고 말한다. S와 다시 연락하기는 쉬웠다. 드럼 앤 베이스 근무조는 아주 흥겹지만 그리 붐비지는 않는다. 어떤 보충제를 섭취하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 세션에서 춤추는 건 마치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도 같다. 댄스 플로어 한가운데서 내가 움직이는 방식 그대로 움직이는 S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후 우리는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절에 대해 비슷한 향수를 느낀다는 걸 알게 될 터였다. S와 나는 간식 코너에서 긴 휴식 시간을 보내면서 ‘The Scene’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테크노 음악 근무조에서는 사람들에게 ‘The Professionals’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R은 ‘The Scene’이 무엇인지 흥미를 보이며 두부 큐브를 찾아 수프를 뒤적였다. P는 내가 정의한 대로 답했다. ‘The Scene’이란 절대 말을 걸지 않고 너무 친밀해지지도 않지만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그리워하는 댄스 파트너다. P는 S를 아직 모르기에, 이제 내가 ‘The Professionals’에 대해 답해줄 차례였다. 나는 P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내 말의 윤리성과 상관없이 이 우주선에 대해 어떤 생각이든 반기는 R과 V에게 집중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멋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입으려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도 따르는 규칙을 만들고, 씩씩이 춤을 추지만 가볍게 움직인다. V는 내가 조심스럽고 다소 질투심에 찬 눈빛이 절제되고 우아한 태도에 대한 보답이라고 덧붙이자 재미있어 했다. R은 수프에서 나와 V를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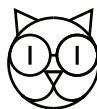


불쑥 말했다. 그들이야말로 지난 밤 우리가 이야기했던 ‘Perfect Followers’, 내부로부터의 침입자라고! R은 추상적인 충동에 인해 스스로의 아이디어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다.궁극의 이미지, 이미지 없는 이미지, 재현을 수행하는 현실, 진실된 가짜, 우주선의 제작자들... 그리고 P가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일, 바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정돈하는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주방 파이프에서 K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내가 해냈어! 에너지 탱크에 탑승했어!”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주로 춤을 추기 전, 춤을 추면서, 춤을 추고나서 나누었던 많은 대화와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 썼다. 마치 댄스 스텝과 같이, 아이디어 역시 전적으로 우리 자신만의 소유는 아니다.

### 저자 소개

소니아 페르난데스 판은 익명으로 글을 쓰고, (비)독립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춤을 춘다. 친근한 대화와 욕망, 엔트로피는 페르난데스 판이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일환이다. 페르난데스 판은 바젤의 스위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자연 연구소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리즈 “Promise no Promises”의 진행자로, 최근 『Edit』(Caniche 출판사, 2022)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함께 춤을 추는 것의 논리와 윤리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글을 리믹스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편집: 잉고 니어만

한국어 번역: 박재용

영어 텍스트 편집: 로잔나 맥러플린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3, 소니아 페르난데스 판,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